

## 2003년 새해를 맞이하여...



**癸未年** 새해를 맞이하여 국토방위에 여념이 없는 국군장병과 방산업체 임직원 그리고 애독자 여러분의 가정에 축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날 세계 안보환경은 양극체제가 붕괴된 탈냉전 이후 화해 협력의 국제적 흐름 이면에 영토, 자원, 민족, 종교를 둘러싼 다양한 형태의 분쟁이 계속되고 있으며, 특히 9.11 테러 사태 이후 새로운 초국가적, 비 군사적, 탈 이념적 위협이 국제 사회의 핵심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한반도의 경우 2000년 6월 남·북 정상회담 이후 금강산 관광, 경의선 복원 등 긴장완화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 다량의 화학무기 보유, 지속적인 핵개발 의혹 등 실제로 군사적 대치의 위협이 감소된 징후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특히 지난해 6월 29일 서해교전에서 보았듯이 북한은 아직도 우리에게 대하여 호전적이며 적대적인 군사행동을 자행하고 있어 더욱 강력한 국가 안보태세의 확립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한편 첨단 정보·과학기술이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새로운 전쟁 패러다임 속에서 선진국들은 핵심 기술의 이전을 기피하고 자국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있어, 우리 방위산업은 국제적으로 국방기술의 종속화에 대한 우려와 함께 국내 수요 물량의 축소 및 이에 따른 가동률 저하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국방위산업진흥회는 이러한 안보환경의 변화와 방산업계의 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새해 목표를 「방위산업 경쟁력 제고 및 수출 활동 강화」의 해로 정하고, 새로운 방산 육성정책 개발과 업계지원에 발벗고 나서 수출 마케팅 강화와 해외 기술 협력 내실화에 힘써 나갈 계획입니다.

한국방위산업진흥회의 발전과 月刊<國防과 技術>의 발행에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여러분께 감사 드리고 새해에도 국방관계자 여러분의 건승을 다시 한번 축원 드립니다.

2003년 1월 1일  
한국방위산업진흥회 회장 沈利澤